여러분!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소리를 듣고, 우리가 있는 곳을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.
우리가 누군가에 의해, 또는 나 스스로로 인해 점점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,
우리의 아파하는 소리를 듣고, 예수님은 바다를 건너오시고, 우리의 이름을 물으시고,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죠.
그런 예수님으로인해 구원받은 우리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말씀의 열매를 나누며 살아가면 좋겠네요.
(마가복음 5장 1-20절)